

# “3승한 kt·LG도, 3패한 SK·넥센도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 LIVE 특 | 여전한 한화? 염경엽 전·현 소속팀 3연패 뒷이야기

프로야구가 마침내 개막했습니다. 스포츠동아는 KBO리그 개막을 맞이해 'LIVE 특'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사 형식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구성으로 스포츠동아 야구담당 기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자유로운 발언으로 토해낸 내용을 편집 없이 날 것 그대로 담습니다. 이재국 기자(총괄)가 김영준(롯데 담당), 이경호(두산·NC 담당), 홍재현(LG·삼성 담당), 이명노(KIA·SK 담당), 강산(넥센·한화 담당), 고봉준(kt 담당·두산 2진) 기자를 대화창에 초대했습니다. 개막 3연전 스케치입니다.

**이재국 기자**  
인천에서 통신사 데비가 열렸는데 지난해 꼴찌 kt가 3연승 올렸네요

**이명노 기자**  
kt는 3연전에서 볼넷이 0개였어요 정대현 무4사구 승리 보고 놀랐죠

**고봉준 기자**  
SK는 실책이 패인이었죠 아, 그리고 대니 worse...

**이경호 기자**  
그나저나 장성우가 복귀했죠 조범현 감독만 못 써먹은 꼴

**이재국 기자**  
고척에선 넥센 장정석 감독이 흑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강산 기자**  
더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거예요 반면 LG 양상문 감독은 땀땀 터졌죠

**홍재현 기자**  
'양파고'가 이제 확신을 가진 듯 마련된 플랜B도 잘 가동했어

**이재국 기자**  
대망의 두산-한화 개막전 3경기를 5경기처럼 했죠

**이경호 기자**  
한화 오간도가 얼마나 버틸지 궁금 실책 7개...수비전략 실패 지적

**이명노 기자**  
1구1구에 수비 위치 조정 한화는 로봇 야구 하나

**이재국 기자**  
롯데는 이대호 효과 좀 봤나요 덕아웃 분위기를 주도하더군요

**김영준 기자**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 화끈해야죠 그룹도 우울한데 야구라도 잘했으면...

**이재국 기자**  
KIA는 2차전 7-0 리드까지만 해도 올 시즌 서광이 비치는가 했는데

**이명노 기자**  
아, KIA야구 극단적이에요 타선은 세요... 나지만 7할!

**홍재현 기자**  
삼성 불펜은 답이 없어요 올해는 육성에 집중해야

**김영준 기자**  
말 그대로 올 시즌 삼성은 '이승엽의 삼성'인 거예요

**이재국(이하 국)** : 올해는 개막 매치업도 흥미진진했는데, 애기거리가 참 많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사라는데 야구도 참 앞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연승과 3연패로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인천과 고척 애기부터 풀어볼까요? 특히 인천에서 통신사 데비가 열렸는데 지난해 꼴찌 kt가 3연승을 올린 게 눈에 띕니다.

### 꼴찌 kt의 돌풍은 어디까지?

**김영준(이하 준)** : SK는 스피드업의 모범구단이예요.ㅎ  
**이명노(이하 노)** : ㅎㅎㅎ. 4월1일 경기가 2시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 : 그러게요. 오후 2시에 시작한 잠실경기보다 오후 5시에 시작한 인천 경기가 더 빨리 끝났죠?  
**노** : 김진욱 감독이 이른날 “5G 시대에 kt 5G가 더 빨랐다”고 하더군요. ㅎㅎㅎ

**이경호(이하 호)** : 힐만 야구 빠르네요.  
**홍재현(이하 현)** : kt가 잘 한 것도 있지만 SK가 무너진 게 더 커 보이던데요.  
**고봉준(이하 고)** : SK 실책이 패인이었습니다. 3일 동안 4실책입니다.

**강산(이하 산)** : SK 타선이 워낙 안 터지기도 했죠.  
**국** : kt가 잘한 부분부터 얘기하죠. 시범경기에서 1위할 때만 해도 시범경기일 뿐이라고 봤는데, 개막 이후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개막전을 다녀온 이명노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노** : kt는 3연전에서 볼넷이 0개였습니다. 이전 확실히 짚어볼 대목이에요. 단 3경기이긴 하지만 투수진이 발전한 모습이 확 눈에 띄더군요.  
**산** : 일단 선발야구가 됐습니다.

**노** : 저는 둘째 날 정대현이 무4사구로 승리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외국인투수 2명은 그렇다 쳐도 그동안 제구가 문제였던 그 정대현이요.  
**고** : 선발들이 6~7이닝을 막아주니 불펜야구가 계산대로 나왔습니다.

**국** : SNS 파문을 일으켰던 장성우도 복귀했죠?  
**노** : 장성우 복귀가 뜨거울 것 같은데, 김진욱 감독은 나름대로 해법을 잘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김 감독은 이해창 2경기, 장성우 1경기 식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적당히 욕 달 먹고 쓰기에 딱 좋은 기용방식이네요. 3번째 경기에서 방망이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더군요.

**준** : “별 발을 만큼 받았다” 하는 여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만이 거세지 않은 거 보면.  
**호** : 잊혀진 거예요. 지금도 육은 많이 먹고 있는 데 언론에서 관심이 없죠.

**현** : 그만큼 부각이 될 때가 때문에 못매를 덜 맞는 것 같아요. 영화 ‘더 킹’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사건을 터트린다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장성우 일은 옛 기억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호** : 자신의 감독 인생을 걸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조범현 감독만 써먹지도 못한 거죠.

**준** : 그런데 과연 오래 갈까요? 대진운도 큰 듯한데...  
**고** : 이번 주 화수목 두산전이 관건이죠.ㅎ  
**노** : SK는 힐만 감독이 쉼 해볼 수도 없게 됐어요. 방망이의 팀인데 방망이부터 안 맞으니. 거기에 수비 실책까지. 개막 3연전일 뿐이지만, 힐만 감독을 영입한 가장 큰 이유인 디테일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준** : kt의 돌풍을 논하기에 앞서 SK가 보여준 게 없었다고 봐요. 보여준 게 없으니 논평할 게 없어요. 외국인 야수가 또 구멍이 되는 거 같고.  
**노** : 대니 위스는 문제가 심각해요. 유격수 수비를 써보지도 못하니. 지명타자급 외국인선수도 아니고요.

**고** : worse...  
**국** : ㅋㅋㅋ 고봉준 기자 모처럼 야재개그를.  
**준** : 재밌는 건 염경엽의 팀과 이장석의 팀이 나란히 3패예요.  
**노** : 염경엽 단장, 전 소속팀과 현 소속팀 3패.

### 양파고 만난 넥센 충격의 3연패

**국** : 말씀 나온 김에 넥센 얘기로 넘어가보죠. 고척에 다녀온 강산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산** : 넥센은 일단 타자들이 찬스에서 결정력을 못 보여줬죠. LG 컨디션도 좋았고요.  
**준** : 개막 3연전 LG한테 잘못 걸렸어요. LG가 좋았죠.

**현** : LG는 마련된 플랜B가 잘 가동됐어요.  
**노** : 넥센도 뎀봉이던데요.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선수 본인 판단”이라며 웃고 말더군요.

**현** : 아무튼 LG는 ‘양파고’가 지난해 선수기용에 고민이 컸다면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 : 양상문 감독이 지목한 선수가 그날그날 다 터졌죠.  
**노** : 이형중, 이천웅, 서상우... 그냥 못자리 까셔야 할 듯.  
**국** : 개막 3연전 3연승이 LG로선 2000년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죠?  
**노** : 관중은 파리 날렸지만, LG의 불인가요.ㅎ 개막 3연전 내내 2경기 매진은 참 압담하던데요. 그것도 마산만 2경기 매진된 거였죠. WBC에, 선수협에, 이리다 말할 수도 있어요. 위기의식 좀 느껴야 할 듯요.

**준** : 5월 대선까지 팬층을 지가 관건이네요. 그때까지가 사실 야구 대목인데...  
**호** : 제 생각에는 대선과는 상관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대규모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이었죠.  
**준** : 공교롭게도 엘리트, 그리고 한화 등 인기팀 페이스가 좋을 듯해요.ㅎ

**산** : 장정석 감독은 초반에 6~7연패해도 144게임 체제나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긴 했는데...  
**준** : 장 감독은 전임자가 실적을 낸 다음에 경차 룩을 통해 팀을 물려받은 거라 힐만보다 더 부담이 클 겁니다. 선수들이 ‘이 감독 뭐야?’ 이렇게 느껴면 더 어려워지죠. 그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초반이 고비예요. 물론 이 팀은 초반에 방점을 찍는 팀은 아니겠지만.

**산** : 염 감독이 해놓았던 것보다 더 잘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겠죠.  
**국** : 새 외국인 오설리반도 단지 1경기 결과일 뿐인지 모르지만 개막 3연전에 등판한 외국인투수 중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노** : 오설리반 외부 평가가 좋지 않아요. 몸값이 110만 달러인데, 넥센이 오버페이했다는 평가가 많던데요.

**현** : 신재영도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네요. 넥센은 선발이 무너지면 위험한 팀인데.  
**산** : 선발 무너지면 끝이죠. 지금 뎀 케렌도 구속이 안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준** : 넥센 1~3선발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번 주 초에 ‘최강’ 롯데를 만나죠.

**국** : ㅋㅋㅋ 롯데는 개막 3연전에서 NC에 2승 1패 했으니 작년에 한 걸(1승15패) 이미 넘어섰죠. 아무리 그래도 롯데 담당이지만 사실 팍팍 넘어 ‘최강’ 롯데는 좀... ㅎㅎㅎ  
**준** : 롯데는 이기든 지든 이렇게만 야구하면 돼요. 홈런 많이 치고, 아이없는 플레이도 하고, 개막전 이후엔 3루 도루처럼...  
**국** : 5-6으로 추격한 9회초 2사 2루서 갑자기 3루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돼 허무하게 경기가 끝났죠. 다음날 그것에 대해 롯데 조원우 감독에게 물어